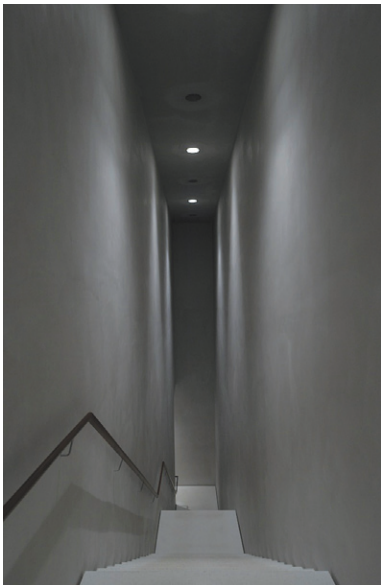


| 글. 김성환_ Kim, Sung-whan

•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땅이 가지는 의미, 두 번째 이야기_ 콜롬바 박물관

The Implication of Land, the 2nd Story_ Kolumba



Kolumba-Museum-27-Zumthor-Yuri-Palmin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7월호 '해외건축동향 - 독일'편), 건축이 도시 안에서 땅에 반응하여 과거의 맥락을 담아내는 역할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건축이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도시에 안겨주는지를 눈여겨보고자 한다.

전쟁의 잔재와 재현

1943년, 독일군과 연합군의 대치 속에서 독일 서북부 도시 쾰른에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작전으로 인한 폭격이 있기 전까지, 성 콜롬바 교구(the Saint Kolumba parish)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이자 중앙기관이었다. 공습 이후 파괴된 잔재를 복원하지 않고 방치해두다가 1949년 당시 이 지역의 건축사 고프리드 뵘(Gottfried Böhm)이 그 잔재들을 모아 설계안을 제안한다. 이후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곳에 2003년 피터 Zumthor(Peter Zumthor)의 설계안이 실현되기 시작하여, 4년 뒤인 2007년 9월 현재의 모습을 가진 콜롬바 박물관(Kolumba)이 완성되었다. 당시 복원안의 목적은 과거 종교시설의 복구였으나, 건축사가 가진 사상과 폭격 이후 발견된 유물 및 교회 잔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박물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재료에 대한 진지한 탐구

피터 Zumthor는 초기 계획안부터 꾸준히 재료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다. 부서지고 난 잔재들의 원료인 사암과 폭격 후에도 무사히 살아남은 벽들의 재료를 꾸준히 관찰하여, 한 장소에 남아있는,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구사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그 위에 새로움이 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영리하게 탐구하였다. 밝은 진회색으로 모르타르 마감이 된 듯한 외관은 독일 표준규격에 있지 않은 새로운 크기를 만들어 냈다. 폭격 이전에 건물이 가지고 있던 황갈색 사암벽돌이 주는 재료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내기 위해, 54cm×4cm 크기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벽돌을 준비했다. 이 벽돌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Zumthor만의 어휘를 그대로 소화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고딕양식의 조각, 창 그리고 망루 등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 이후 이 벽돌은 콜롬바 벽돌(Kolumba Fuellziegel)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승인을 받았다. 이 힘 있고 미니멀한 외벽과 내벽

은 합계 총 60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터 줌터는 점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내부천장 모르타르 칠을 위한 콜롬바회색(Kolumbagrau)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창안해 냈다. 고운 점판암 입자가루 10%와 밝은 도자기 색의 고품토 90% 비율로 혼합된 재료에 셀룰로오즈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존 점토광물이 가지고 있는 점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 약한 점성으로 미니멀한 입면의 느낌이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전체가 수작업으로 진행된 이 모르타르 칠은 기존 입면에서 2mm 정도의 깊이가 생기고, 물과 유제품(Quarkmilch 치즈커드)이 섞인 액체가 그 위를 덮음으로써 마감된다. 이 곱고 세밀한 입자를 가진 내부입면은 이를 동안의 시간을 거쳐 재료 자체가 은은하게 반사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건조된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일사광선 및 전시장에서 생기는 다운라이트는 건물의 모든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는 1개층 높이의 크기를 가진 창문이 한몫을 한다. 창을 지탱하는 테두리가 전시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이 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내부공간으로 떨어지는 빛들은 재료가 가지는 특유의 회색에 다양하게 반사되어 매 전시공간마다 다른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회색빛 사람의 느낌을 주는 외벽, 패각 석회암에서 풍기는 입구부분의 어두운 회색,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의 느낌을 주는 바닥 등은 굉장히 거칠고 남성적인, 동시에 숭고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장소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

이와 같이 오랜 시간과 수고를 요하는 공사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공사비용은 3,600백만 유로에서 4,400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 시작된 공사는 2007년 9월에 완공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진행됐다. 쾰른 대교구 당시 대변인 노버트 펠트호프(Nobert Feldhoff)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박물관은 현저하게 전도적이고, 목자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Dieses Museum hat eine eminente missionarische und pastorale Aufgabe.”

그러나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시 모든 언론과 일반인들은 ‘종교적인 시설에 필요 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도시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끊이지 않고 제기했다. 하지만 쾰른 대교구 측은 건축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피터 줌터의 역량과 재능에 자신들의 확신이 더해진다면 좋은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고, 그 좋은 건축물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쾰른 대성당과 함께 이 도시에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장소성이 가지고 있던 맥락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건축물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소에서 발견되었던 많은 유물과 기존의 잔재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매개체, 즉 전시물로 연결되어 건물 자체에 힘이 배가된 덕분이다.

1997년 공모전 당시 61개의 응모작 중 피터 줌터의 설계안이 당선되고 난 후, 주최 측에서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 베를린 Topographie des Terrors의 사례를 보며,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믿고 있다면 끝까지 지지해 줘야 하며,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터 줌터 또한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고, 결국 건축사와 건축주가 같이 고민한 끝에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



Kolumba_Muster_Gerhard Kahlert